

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 국민이 직접 잡는다… 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공개 모집




- 대형마트부터 오픈마켓까지 온·오프라인 유통망 아우르는 촘촘한 감시체계 구축
-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 7월 6일부터 2주간 신청 접수

관세청은 일상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을 근절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7월 6일(월)부터 ‘원산지 국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이 크게 늘고 유통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저가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위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시장을 살피는 참여형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선발된 국민감시단은 대형마트, 소매점 등 생활 주변 현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 오픈마켓 등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를 폭넓게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원산지표시 의심 사례를 제보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를 홍보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게 된다.

< 원산지표시 위반 의심 사례 예시 >

위반 유형	원산지표시 위반 사진
[원산지 오인표시] 외국산 의류에 원산지표시 없이 'Design from SEOUL'만 표시한 경우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 헤어핀에 직접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포장에만 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표시를 가격 스티커 등으로 가리거나 훼손한 경우	

이번 공개 모집은 원산지표시 제도에 관심이 많고 현장 및 온라인 감시 활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시각과 전국적인 감시망 구축을 위해 연령별·지역별로 고르게 3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모집 안내와 지원 방법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오는 7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신청 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는 꼼꼼한 감시가 올바른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에 동참할 열정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붙임 : 원산지 국민감시단 공개 모집 안내 포스터

담당 부서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윤지혜 (042-481-7880)
	공정무역심사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순 (042-481-7742)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1978

원산지 국민감시단 공개 모집



일본산 한국산
태국산 미국산
베트남산 일본산
프랑스산 인도산
한국산

 온·오프라인
전반 감시

 원산지표시
의심 사례 제보

 올바른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강화

 신청기간 2026. 7. 6. ~ 7. 17. (2주간)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aboki@korea.kr) 또는 QR접수

 활동혜택 위촉장 수여 및 우수활동자 표창

 지원자격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 원산지표시 제도에 관심 많고 현장 및 온라인 활동 가능자



내 손으로 지키는 올바른 원산지, 함께 만드는 공정한 대한민국

관세청